

II. 경제·정치 현황

1. 경제 동향

가. 국내경제

<표 II-1> 주요 국내경제지표 (2006~10년)

	단위	2006	2007	2008	2009 ^e	2010 ^f
G D P	US\$억	9,525	10,254	10,899	8,749	10,173
1 인 당 G D P	US\$	8,865	9,434	9,912	7,870	9,042
경 제 성 장 률	%	4.9	3.3	1.5	-6.6	4.6
소비자물가상승률	%	3.6	4.0	5.1	5.3	5.6
재 정 수 지 / G D P	%	0.1	0.0	-0.1	-2.3	-1.0

자료 : IMF, EIU

(1) 경제성장

□ 지난 15년 내 최악의 경기침체 이후 성장세 회복 중

— 미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신종 인플루엔자가 창궐로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어 멕시코의 2009년 경제성장률은 중남미 최저

치인 -6.6%를 기록하는 등 지난 15년 내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었음.

·미국(멕시코 총수출의 80%, 외국인직접투자의 50% 차지)의 경기침체 지속으로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미국 거주 멕시코 근로자의 본국 송금액도 감소함에 따라 내수도 위축됨.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도 절반 이하로 급감함.

— 2009년 하반기 이후 미국의 경기회복과 주요 수출품인 원유의 국제가격 반등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산 및 투자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2010년에는 4%~5%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2009년 6월 이후 제조업(2.4%)과 전력(0.1%) 등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11월 제조업지수(Manufacturing Index)¹⁾는 50.9 포인트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8 포인트, 전월 대비 2.7 포인트 상승하는 등 멕시코 경제가 하반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됨.

(2) 물가

□ 소비자물가 상승 추세 지속

— 미국 금융위기가 급격하게 확산되었던 2008년 말에는 폐소화 통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여 월별 물가상승률이 6.5%까지 급등하기도 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 위축,

1) 제조업지수가 50 포인트 이상이면 제조업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

달러 약세 기조로 인한 대미 수입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점차 하향 안정화됨. 이에 따라 2008~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각각 5.1%와 5.3%를 기록하였음.

- 2009년 말 멕시코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15%에서 16%로 1% 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전반적인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가운데,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이 경기부양을 위해 적정 수준 완화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201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대 후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3) 재정수지

□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로 재정적자 크게 확대

- 경기 침체의 심화를 막기 위해 2008년 10월과 200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정책자금의 투입을 공표하는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함에 따라 2009년에는 대규모 재정적자(GDP의 -2.3%)를 기록함.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세개혁안 의회 통과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세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정부 세입이 증가하여 재정수지 적자 폭이 GDP의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세율 인상 위주의 조세개혁안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참고 1】 2008~09년 경기부양책 주요 내용

□ 추진 내역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멕시코 정부는 2008년 10월 8일 ‘경제성장 및 고용촉진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a para Impulsar el Crecimiento y el Empleo)’을 발표한 데 이어 2009년 1월 7일 ‘가계와 고용을 위한 국민협약(Acuerdo Nacional en favor de la Economía Familiar y el Empleo)’을 발표하는 등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연이어 실시함.

□ 주요 내용

- 경기 부양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단기고용 및 사회보험혜택 확대를 통한 고용 지원(80.5억 페소 규모), 휘발유 및 LPG 가격 요금의 인하, 근로자 및 공무원 주택기금의 확대를 통한 가계 지원(81.5억 페소 규모) 등이 있음.
- 아울러, 중소기업 용자를 확대하고 각종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총 3,970억 페소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책과 재정투자 조기 집행,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계획을 위해 총 6,660억 페소가 투입될 계획임.

□ 정책에 대한 평가

- 멕시코 재무부는 상기 경기부양책을 통해 가계 소득 증대 효과, 중소기업 자생능력 확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른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신종인플루엔자의 창궐과 주요 교역국인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채 2009년 경제성장률은 크게 위축(-6.6%)되었음.

【참고 2】 조세개혁의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조세개혁 주요내용은 부가가치세(IVA) 인상(15%→16%), 법인소득세(ISR) 한시적 인상(3년간 28%→30%) 및 결합법인세 소급부과(과거 5년), 현금예금세(IDE) 인상(2%→3%) 및 과세 기준 강화(현 25,000페소→15,000페소), 전화요금 특별소비세(IEPS) 인상(3%) 등임.

□ 기대 효과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세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정부 세입이 증가하여 재정수지 적자 폭이 2010년부터는 GDP의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세율 인상 위주의 조세개혁안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나. 국제경제

<표 II-2> 주요 국제경제지표 (2006~10년)

구 분	단위	2006	2007	2008	2009 ^e	2010 ^f
경 상 수 지	억 달러	-44	-84	-159	-52	-135
경상수지/GDP	%	-0.5	-0.8	-1.5	-0.6	-1.3
상 품 수 지	억 달러	-61	-100	-172	-46	-119
수 출	억 달러	2,499	2,718	2,913	2,297	2,696
수 입	억 달러	2,560	2,819	3,086	2,343	2,815

자료 : EIU

(1) 수출입동향

□ 수출입 모두 급감하였으나 증가세 전환 전망

- 2008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던 수출입은 미국, EU, 중남미 등 주요 수출 대상 지역의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했고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과 원유생산량 감소로 자원관련 수출도 줄어드는 한편, 경기침체와 환율인상으로 인해 수입도 급감하여 수출입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음.
- 2010년에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경기 회복세 전환으로 수출입이 모두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수출품인 멕시코산 원유의 수출가격은 2008년 7월 배럴당 120달러 수준에서 2009년 1월에는 28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2009년 12월에는 다시 70달러 수준으로 상승함.

(2) 경상수지

□ 경상수지 적자규모 축소

- 경상수지는 최근 수년간 상품수지 적자규모 확대로 인해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나, 2009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 급감으로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규모도 GDP의 -0.6%인 52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됨.
- 2010년에는 폐소화 환율안정과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다시 119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고, 미국거주

멕시코인의 본국송금액 감소로 인한 경상이전수지 악화 등으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GDP의 -1.3%인 13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3) 해외거주자 송금

<표 II-3> 해외송금액 유입 추이 (2005~09년)

단위 : 억 달러, %

	2005	2006	2007	2008	2009 ^e
해외 송금액	216.9	255.7	260.7	251.4	211.8

자료 : Banxico

□ 해외거주자 송금액 감소세 전환

- 2,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거주 멕시코인들의 본국 송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해외거주자 송금은 수출을 제외하고 외국인 관광수입과 함께 멕시코의 가장 중요한 외화가득원이고, 경상수지 적자규모 축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 2005년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초과했던 해외근로자 송금액은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다가, 2008년 처음으로 -3%의 감소를 기록함. 2009년에도 경기침체 심화로 전년대비 15.7% 가량 감소한 21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많은 빈곤층 가계가 해외근로자 송금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어 내수 시장의 회복세 전환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됨.

(4) 외국인 직접투자

<표 II-4> FDI 유입 추이 (2005~09년)

단위: 억 달러, %

	2005	2006	2007	2008	2009 ^e
FDI 유입액	221	195	271	225	114
% of GDP	2.6	2.0	2.6	2.1	1.3

자료 : IMF

□ 최근 경제위기로 FDI 급감

- 멕시코의 FDI 유입규모는 1994년 NAFTA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함. 1990년 25억 달러에 불과했던 FDI 유입액은 마킬라도라 투자, 민영화 사업 등에 힘입어 2001년 298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07년에는 271억 달러로 사상 두 번째로 많은 FDI 유입액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8년 하반기부터 주요 투자국인 미국의 경제 위기, 원자재 가격 하락, 관광산업 침체 등으로 인해 2008~09년 FDI 유입액은 각각 225억 달러와 114억 달러로 급감하였음.

□ 높은 대미 투자의존도

- 한편, 2009년 국가별 FDI 유입 실적을 보면, 미국이 전체 FDI 유입액의 50.9%로 미국에 대한 투자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국가로는 네덜란드 12.8%, 캐나다 9.1%, 스페인 5.5% 순이었음.

— 산업 부문별로는 제조업이 42.3%로 가장 많은 FDI가 유입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투자자금이 유입된 부문은 금융업(22.6%) 임. 제조업 부문에 투자된 48억 달러 중 60% 이상이 자동차 산업의 생산·설비 부문에 투자되었음.

다. 국제신인도

<표 II-5> 주요 외채지표 (2005~09년)

단위 : 억 달러, %

	2005	2006	2007	2008	2009 ^e
총 외 채 잔 액	1,679	1,605	1,781	1,788	1,823
총외채잔액/GDP	19.8	16.8	17.4	16.4	20.8
총외채잔액/총수출	65.2	53.8	55.1	52.2	67.2
D. S. R.	17.5	18.8	12.5	13.4	14.1
외 환 보 유 액	740	762	871	951	995

자료 : EIU

(1) 외채 상황

□ 과거 외채위기로 빈번한 리스케줄링 경험

— 멕시코는 1982년 8월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데 이어 1994년 12월에 또다시 외환위기를 경험한 바 있음. 1983년 이후 외채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12회에 걸쳐 공공 및 민간 채권자와 채무재조정을 실시하였고, 특히 브래디 플랜에 의한 채무스왑으로 채무삭감 혜택을 받음.

- 1994년 외환위기는 미국(200억 달러)과 IMF(178억 달러), BIS(100억 달러) 등 국제기구가 총 50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한편, 1995년 이후 수출호조로 인해 멕시코 경제가 성장 기조를 회복하여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의 직접차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음.

□ 외환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환 확보 노력

- 경제성장과 수출증가 그리고 브래디 본드에 대한 조기상환 등으로 총외채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나, 2009년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로 외채 규모는 소폭 증가함. 2009년 말 현재 총 외채규모는 GDP의 약 20%인 1,823억 달러, D.S.R.은 14%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멕시코 정부는 실물경제의 위기가 외환위기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외환보유액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페소화의 가치 하락 및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외환 확보 정책을 실시하여 2009년 말에는 외환보유액이 995억 달러로 증가함.
-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과 더불어 급락세로 전환되었던 페소화의 대미달러 환율도 정부의 적극적인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에 힘입어 1달러당 13페소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신중한 외채관리로 외채위기 재발 가능성 낮음

- 신중한 거시경제 운영과 외국인직접투자의 꾸준한 유입 및 외환보유액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외채상환불능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수출 회복과 더불어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은 멕시코는 2008년 10월 유동성 확보의 일환으로 멕시코중앙은행과 미국 연방은행이 체결한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이 금년 2월 1일 만료 되었으나, 이를 연장하지 않았음.

□ IMF 신축적신용공여제도는 1년 연장

- 멕시코 정부는 2009년 4월 IMF에 470억 달러 규모의 신축적신용공여제도(Flexible Credit Line)를 신청, 첫 수혜국으로 지정되었음.
- 2010년 3월말 현재까지 인출 실적이 없고, 당분간 인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멕시코 정부는 미국 경제의 회복 지연 또는 원자재 가격 변동 등에 대비하여 금년 4월 IMF와의 차관 계약을 갱신하였음.

(2) 국제신인도

□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투자적격등급으로 분류

- 멕시코는 신중한 외채관리정책과 건실한 거시경제 운영, 균형재정 유지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세계 3대 민간신용평가기관인 S&P, Fitch, Moody's로부터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부여받고 있음.

□ 신용등급 하향세

- 그러나 교역의존도가 높은 미국경기의 침체와 신종플루 발생 등 대내외적인 악재가 지속되고, 정부의 경기부양책 추진과 세원 축소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2009년에 세계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일제히 멕시코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조정하였음.
- Fitch와 S&P사는 조세개혁의 의회 통과, 칼데론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 등을 근거로 2007년에 멕시코의 국가신용등급을 각각 BBB+로 1단계 상향조정했음. 그러나 2009년 11월과 12월에는 재정 악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전망 등을 이유로 멕시코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한단계 하향 조정함.
- OECD는 2009년 7월에 멕시코의 국가신용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

<표 II-6>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 순위

기관명	2008년	2009년
한국수출입은행	B2	B2
OECD	2등급	3등급
S&P	BBB+(stable)	BBB(stable)
Moody's	Baa1(stable)	Baa1(stable)
Fitch	BBB+(negative)	BBB(stable)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영국 ECGD 모두 특별한 제한 없이 지원

2. 정치·사회 동향

가. 정치동향

□ 2006년 12월 깔데론 정부 출범

- 2000년 7월 제도혁명당(PRI)의 71년간에 걸친 장기집권이 종식되었고, 이후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06년 7월 실시된 대선에서 전임 폭스(Vicente Fox) 정부에서 에너지장관을 역임하고, 친미적 시장경제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집권 여당인 국민행동당(PAN)의 깔데론 후보가 35.8%를 득표하여 대통령에 당선됨.
- 2위를 차지한 민중혁명당(PRD)의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후보가 광범위한 개표 부정이 이뤄졌다고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대규모 시위를 주도함에 따라 일부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가 실시되기도 하였음. 깔데론 정부는 출범 직후 강력한 마약범죄 소탕작전을 전개하면서 지지율이 상승하였음.

□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개혁정책 추진 난항 예상

- 신종인플루엔자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 전염병 확산 대처능력 부족 등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지난해 7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행동당은 야당에게 참패하여 다수당의 자리를 제도혁명당*에 내주게 됨.

* 제도혁명당(PRI)는 총 500석 중 237석, 여당인 국민행동당(PAN)은 143석 차지

- 이로 인해 여소야대 정국이 전개됨에 따라 에너지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등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던 개혁정책의 추진 향배가 불투명해졌음.
- 현재 가장 큰 정치 현안은 2010~11년으로 예정되어있는 주요 지자체 선거이며, 특히 가장 많은 유권자를 보유한 멕시코시티의 2011년 시장 선거는 2012년 대선 향방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어 각당이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나. 사회 안정성

□ 빈부격차와 치안불안 문제가 상존

- 2006년 대통령 선거에서 북중부와 중산층은 깔데론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부와 저소득층은 오브라도르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 이데올로기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빈부격차와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해 치안불안이 심각한 상황이고, 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이 지속되고 있으나, 체제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강력한 마약 범죄 소탕작전에도 불구하고 마약 문제 지속

- 깔데론 정부는 3대 마약 카르텔 소탕을 목표로 3만 여명의 군경을

주요 마약 카르텔 활동지역에 파견하여 강력한 소탕작전을 실시하고 있음.

- 최근 주요 마약 카르텔 수뇌를 사살 또는 체포하는 등 정부의 마약 소탕작전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마약 카르텔과 군경간의 유혈 충돌과 마약 카르텔간의 세력 확장을 위한 유혈 폭력사태로 인해 2009년에만 8,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마약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다. 대외 관계

□ 대미관계 강화 등 적극적인 대외정책 추진

- 깔데론 정부는 미국, 캐나다와의 기존 협력관계 강화 및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고, 중남미 국가와의 유대 강화를 통한 역내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마약거래, 불법이민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나, 친미 성향의 깔데론 정부와는 대체로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
- 멕시코는 1994년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OECD에 가입하였으며, 2009년 11월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2010년 1월 G20 예비회의를 주최하는 등 국제정치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교역 다변화를 위한 적극적 통상 외교 추진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외에도 EU와 포괄적 협력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APEC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EU 및 아-태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3. 성장 동인 및 장애요인

가. 성장 동인

(1) 미국시장 접근성 용이

- 멕시코는 북미와 중남미를 연결하는 한편, 태평양과 대서양에 면해 있는 지리적 요충국가로 북쪽으로는 미국과 총 3,326km의 국경을 접하고 있음.
- 멕시코는 NAFTA로 인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EU, 중남미 G3 국가 등 전세계 44개국과 12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미국, EU 및 중남미 시장을 겨냥한 생산거점 및 물류거점으로서 큰 장점을 갖고 있음.

(2) 인구 1억이 넘는 내수시장

- 멕시코는 인구가 1억 명이 넘고,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8,749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며, 1인당 국민소득도 7,870달

러에 달하는 등 소득수준도 비교적 높은 세계 주요 신흥시장 중 하나임.

- 특히, 멕시코 1억 인구의 57%가 30세 이하인 매우 젊은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고, 인구 증가율도 높아 향후 내수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3) 풍부한 부존자원 보유

- 멕시코는 세계 7위의 산유국으로 2008년 말 현재 원유 매장량은 119억 배럴, 천연가스 매장량은 3,300억 입방미터에 달하는 등 원유와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함.
- 멕시코는 석유자원 이외의 광물자원도 풍부한 자원부국임. 멕시코는 세계 3위의 구리 생산국이며, 세계 2위의 은, 세계 6위의 아연 생산국임. 이외에도 창연, 형석, 천정석, 규회석, 비소, 카드뮴, 연, 중정석, 몰리브덴, 소금, 흑연도 풍부함.

(4) 국가신인도 제고와 거시경제 안정 유지로 인한 FDI 유입 증가

- 과거 대내 지향적 수입대체산업화(ISI) 발전모델을 포기하고 대외 지향적 수출주도 발전모델로 전환한 이래 시장개방, 민영화, 규제완화 등 적극적인 개방·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으로 상승하였고 거시경제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국내자본 부족에 따른 투자재원의 확보,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멕시코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고용 및 외화획득 증

대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 매년 FDI 유입액이 100~25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주요 투자유치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나. 장애요인

(1) 에너지산업 구조조정 지연

- 멕시코는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산업에 대한 국가독점으로 인해 에너지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멕시코는 원유를 수출하면서도 정유제품인 가솔린을 수입하는 한편, 풍부한 천연가스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대도시에서도 간헐적으로 단전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전력사정도 좋지 않음.
- 깔데론 대통령은 2008년 10월 에너지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Pemex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법 개정안의 의회 통과에 성공하였으나, 의회내 반대세력과의 협상과정에서 주요 내용들이 미포함되어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 매우 높은 대미경제의존도

- 멕시코는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아 미국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미국은 멕시코 총수출의 80%, 총수입의 49%, FDI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 경제가 침체되면 멕시코 경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등 미국과의 경제 동조화현상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응으로 멕시코 정부는 EU,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다변화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이들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대미 의존도가 조기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전망이다.

(3) 소득불평등과 낮은 교육수준

- 멕시코는 전체 인구의 18%가 빈곤선 아래에 있으며, 전체의 5%가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극빈층으로 분류됨, 상위 10%가 멕시코 전체 소득의 37.9%를 차지하고 있고,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는 0.48로 OECD 최고수준에 달하는 등 절대빈곤과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또한, 멕시코는 제도적으로는 국민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나, 성인 중 중등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이수한 비율이 15%에 그치는 등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낮은 상태임.